

# 새해의 시작 '작은 설' 동지

## 동지



동지는 태양이 황도(黃道) 270도에 이르는 때로,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다. 사계절을 천문학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인데, 올해는 12월 22일에 든다. 동지는 예로부터 지켜온 속절(俗節)로서 지켜온 풍속이라 음력 명절 같지만 사실상 양력 절기다.

글. 정현미(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 동짓날은 밤이 제일 길다! 그러나 동짓날부터 밤은 짧아지고 낮이 길어진다!

고려시대 이색은 『목은집』에서 “동지에는 음(陰)이 극도에 이르러서 이 때문에 일양(一陽)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낮’이 동지로부터 점차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옛사람들은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여겼고, 새로운 시작, 재생, 태양의 부활 등 종교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농가월령가』 11월령에서는 동지는 ‘명일(明日)’이라 하여, 경사스럽게 여겨 속절(俗節)로 삼았으며, ‘동지하례(冬至賀禮)’, ‘동지책력(冬至冊曆)’, ‘동지헌말(冬至獻襪)’, ‘동지시식(冬至時食)’ 등 다양한 풍속이 생겼다. 동지하례는 관리들이 설날처럼 동지 아침에 궁에서 문안 인사를 올렸던 풍속이다. 동지책력은 이때 만든 책력을 나누어 주며 선물하던 것이며, 동지헌말은 이때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버선을 지어 올리던 풍속이다. 특히 동짓날에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된 데 대한 감사와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동지차례, 동지불공 또는 동지고사를 지내는데, 대개 ‘팔죽제’로 지내기에 ‘팔죽’은 대표적 동지 시식이 되었다.

### 붉은색 동지팔죽은 왜 동지음식이 되었나?

『동국세시기』에 팔죽을 동지시식으로 기록하였는데, 오늘날에도 동지에 ‘동지팔죽 먹는 날’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색은 “동지에 팔죽 먹어 오장을 깨끗이 씻으니 혈기가 조화 이루어 평온하여라”고 말했으며, 『의림촬요』에는 동지팔죽으로 역질을 막는다고 했다. ‘동지팔죽’이 건강에 좋고 질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해동죽지』를 보면, 동지에는 붉은 팔죽을 문에 뿌려 부적을 대신한다고 하여, 벽사(辟邪)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민간에서도 동짓날 팔죽을 쑤어먹지 않으면 쉬이 늙고 잔병이 많이 생기며 잡귀가 성행한다고 여겼으며, 동지팔죽을 먹으면 잔병을 없애고 건강해지며 액을 면할 수 있다고 하여 이웃 간에 나눠 먹었다. 동지팔죽을 사당에 ‘천신(薦新)’하고, 방, 마루, 광, 헛간, 우물, 장독대에 한 그릇씩 떠놓아 두거나, 대문이나 벽, 혹은 마을 입구의 신목(神木) 등에 뿌려서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자 하였다. 이는 동짓날이 밤이 가장 긴 날이기도 하였기에, 양(陽)의 색을 가진 붉은 팔으로 벽사와 제액을 하는 ‘제액초복(除厄招福)’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작은 설날에 ‘나이 먹는 법’… 흰색 나이 떡, 새알심

『동국세시기』에 동짓날은 ‘작은 설(亞歲)’이라 하여 동지팔죽에 찹쌀 새알심을 넣어 만든다 했는데, 이는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는 ‘동지첨치(冬至添齒)’의 뜻이 담겨있다. 설날의 ‘떡국 한 그릇’처럼 동지팔죽 새알심이 나이 떡이다. 특히 동지팔죽은 팔죽에 흰 떡 경단을 넣어 끓이는데, ‘새알심의 수’가 나이를 뜻하였기에, 끓일 때 가족의 나이 수대로 새알심을 넣는다. 특히 새알을 자기 나이 수대로 먹어야 운수 좋다고 여겼으니, 많이 먹어야 하는 노인들에게는 곤란하기도 했다. 그래서 작게 만들거나, 크기가 다르게 만들어서 나이를 세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기에 이른다. 청송읍 송생리에서는 큰 새알 한 알은 열 살, 중간 것은 다섯 살, 작은 새알은 한 살로 나이에 맞게 새알 크기를 조절했다. 또한 새알심으로 재수를 점치기도 하였다. 영주에서는 ‘용알’이라 하여 크게 만든 새알을 보통 크기의 새알과 섞어 끓이는데, 용

알이 든 팔죽을 먹는 사람은 재수가 좋다고 여겼다. 오늘날에는 나이 수대로 먹는 풍속들이 많이 희석되어, 새알심 동지팔죽을 먹으면 나이 한 살 먹었다고도 여긴다.

### 동지에는 항상 ‘동지팔죽’을 먹는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양력 절기를 음력과 연관시키면서 예외가 생겼다. 민간에서는 동짓날이 음력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 한다. 올해는 음력 11월 하순에 들었으니, 노동지이다. 대개 애동지 때는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팔죽 대신 팔시루떡을 해먹는 풍속이 일반적이다. 또한 괴질이나 염병으로 죽은 조상이 있는 집에서도 팔죽을 쑤지 않는다.

### 동지팔죽의 또 다른 의미

고려시대에 동지팔죽은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14세기의 『익재집』에는 동짓날에 동지팔죽을 끓여 고운 옷을 입고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며 술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경로사상도 볼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동지시식 동지팔죽은 나쁜 일은 없애버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기원의 음식이다. 이를 부모님께 드리며 장수를 기원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모두 행복해지는 삶을 꿈꾸는 것이다. 과거 의약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질병이나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정에서 손쉽게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했으니, 옛 사람들에게 동지팔죽은 간절한 기원의 발현이기도 하다.

